

교 혼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 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 수운 ㉞ 교보

• 발행인: 총무원장 강서조  
 • 편집인: 부총무원장 양선모  
 • 발행처: 수운교본부  
 • 발행소: 305-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403  
 • 창간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화/팩스: (042) 861-1771 · 862-9436 / 862-1772  
 • 인쇄처: 삼성디자인기획 042 221-3111  
 • 홈페이지: http://www.suwoongyo.or.kr

## 수운천사 탄강188년 기념대법회 봉행

### 음 4월 15일 오전 10시



교수, 이권재 유성구의회의원 등 지역인사 여러분이 참석하였으며 한양원 회장, 천도교 김동환교령, 탄동농협 민기식 조합장, 둔산경찰서 한달우 서장 등이 축하와 환과 축전을 보내왔다. 이날 많은 장학금을 기탁한 일도지부 채정현교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양선모 前 본부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㉞



▶ 축하하는 한양원 회장



▶ 감사패를 수여받고 있는 채정현교인



▶ 공로패를 수여받고 있는 양선모 前 본부신도회장

교주이신 수운천사 출렁자의 탄강하심과 대각성도를 기리는 “수운천사 탄강 188년 기념 봉축대법회”가 수강188년 5월 9일(토) 오전10시, 본부 도솔천궁에서 화창한 날씨 속에 봉행되었다. 봉축식에는 한양원회장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고, 500여명의 교인이 참여하였다. 전국 각 지부에서도 같은 시간에 봉행되었다. 봉축대법회는 김옥현 교화부장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따라 3인 집례(김승천, 이영주, 신봉섭)가 등단하여 타종과 동시에 명축분향하고 경위사의 예문봉고로 의식이

봉행되었다. 이날 탄강 봉축사에서 강서조 총무원장은 천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인여천 사상의 실천을 늘 행하여야 할것임을 강조하고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남을 위하고 나를 또한 아끼고 위함으로써 헌신 봉사하며 공유하는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종교계를 대표하여 한양원 민족종교 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한회장은 축사에서 수운교의 종교적 역할과 노력에 대하여 치하하고 민족종교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박성호 대전광역시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고 교화부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수운교의 각종 포교활동을 통해 지역과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따뜻한 인간성의 회복으로 서로 높이 받들어 돕고 사는 실천윤리를 치하하고 앞으로 수운교가 우리지역 사회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원해 주실것을 당부하고 축하해주었다. 이날 봉축 법회장에는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상임부회장, 전현규 대전시 문화예술과 종무담당, 최종성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 도행시작



▶ 동문에서 바라본 행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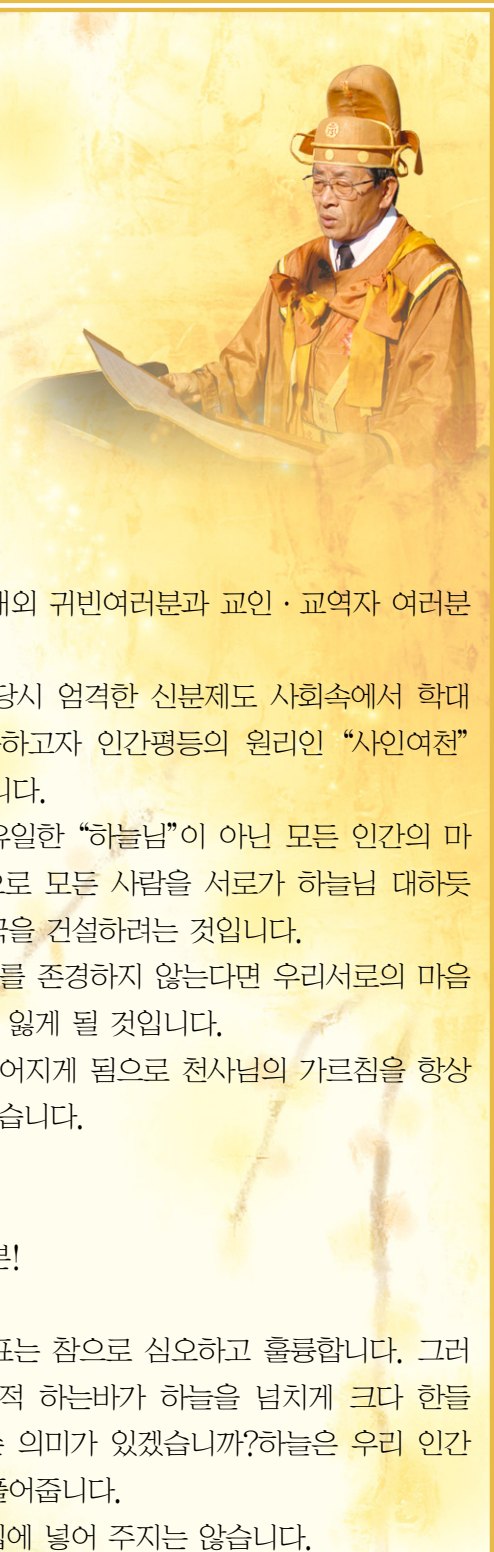


▶ 종각앞 불도화



▶ 법회당 아경

### 수운천사 탄강기념 봉 / 축 / 사



오늘은 수운천사께서 탄강하신지 188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에 이곳 도솔천과 각지부 법당에서 봉축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여러분과 교인·교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찌기 수운천사님께서서는 당시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속에서 학대받고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하고자 인간평등의 원리인 “사인여천” 사상으로 동학을 창도하셨습니다.

즉, 우리인간과 동떨어진 유일한 “하늘님”이 아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늘님을 각각 모심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가 하늘님 대하듯 하여 내세가 아닌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님 대하듯 서로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서로의 마음속의 하늘님은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천국은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 천사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인·교역자 여러분!

어느 종교든 그 진리와 목표는 참으로 심오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오한 진리와 목적 하는바가 하늘을 넘치게 크다 한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베풀어줍니다.

그러나 손에 쥐어 주거나 입에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야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운 천사님께서 『오도박이약 불용다언의라』 즉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삼자이나라 하셨습니다.

〈즉 정성을 다하여 하늘님을 공경하고 우러러 믿으라〉 또 천사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사로운 내것이 아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공유물”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서는 종교적으로는 종단의 일원이며,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원이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사사로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늘 건강에 유의하시어 헌신·봉사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천사주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봉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운강생 188년(2009) 음 4월 15일

수운교 총무원장 강 서 조 합장

### 대전광역시장 祝辭

존경하는 수운교 강서조 총무원장님,  
그리고 수운교 지도자님을 비롯한 교인 여러분!  
오늘 동학의 창시자이신 수운천사님의 탄강 188주년 기념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운교는 수운천사님께서 얻은 깨달음, 즉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서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표방한 실천적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으로,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하라”는 수운교의 종교이념은 오늘 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의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무시하는 인간성 상실과 함께, 정신과 마음을 중시하던 훌륭한 가치관이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수운교가 주창하고 있는 ‘인간존중’ 사상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라, 나아가 한민족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수운교에서는 각종 포교활동을 통해 지역과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따뜻한 인간성의 회복으로 서로 높이 받들어 돕고 사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윤리를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운교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수운천사님의 탄강 188주년을 충심으로 봉축합니다.

오늘 수운천사 탄강 기념법회를 준비해주신 강서조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도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의 가정에 불천사(佛天師)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5월 9일

대전광역시장 박 성 호

### 탄강기념을 축하해 주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 ◆ 화환 및 화분
  -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 협의회 회장
  - 김 동 환 천도교 교령
  - 조 진 현 신성동 동장
  - 김 흥 윤 탄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 경 철 신성동 바르게 살기 위원장
  - 조 기 환 불광미술원 대표
  - 이 병 선 금우회 회장
  - 나스대령 프랑스대사관
- ◆ 축하해주신분
  - 박 우 균 한국민족종교 협의회 상임부 회장
  - 전 현 규 대전시 문화예술과 종무담당
  - 최 종 성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외 20명
  - 이 권 재 유성구 구의원
- ◆ 축전
  - 한 달 우 대전둔산경찰서장
- ◆ 성금
  - 민 기 식 탄동농협 조합장
  - 민 경 철 신성동 주민자치 위원장
  - 김 광 석 탄동농협 외삼 지점장
  - 허 성 욱 자운농협 지점장
  - 박 성 호 대전광역시장
- ◆ 축사해주신분
  -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 협의회 회장
  - 박 성 호 대전광역시장

〈감사합니다〉

# 겨레얼살리기 서울과 지방에서 강연 및 자매결연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양원)는 4월에 세 차례 고등학교 방문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강연회가 열린 4월3일은 서울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 흥병훈)에서 성균관대 최일범 교수가 강연 하였고, 15일에는 공주정보고등학교(교장 장동구)에서 충북대 김용환 교수가 강

연하였으며, 18일에는 천안중앙고등학교(교장 최동식)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인 이서행 교수가 강연하였다.

강연회에 이어 이화여대 곽은아 교수가 가야금을 연주하여 학생들과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시에 겨레얼본부는 세 학교와 자매결연을 갖고 결연패를 교환하였다. ☺

# 용담정에서 열린 천도교 150년 천일기념식에 참석

강서조 총무원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 30여명은 4월 5일 경주 용담정 성지에서 열린 수



후천이 번역하여 동학의 운도가 성하므로 山河大運이 盡歸此道라 하시고, 또한 상극시대가 가

운대신사 득도 150년을 기념하는 천도교 천일기념 대축제에 참석하였다.

민족종교를 대표하여 한양원 회장은 축사에서 “ 무극대도를 대각하신 수운대신사님께서는 侍天主人乃天 事人如天의 대도를 밝히시사 천지개벽의 시운을 당하여 선

고 상생시대가 오니 이제 돌아오는 5萬年은 지상천국 지상낙원의 시대라고 예언적 선포를 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대축제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계지역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

# 3월13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지도자대회 성황리 개최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한양원)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2009 민족종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부터는 임원지도자를 비롯하여 여성회와 청장년회가 동시에 참여하여 합동으로 열렸다. 대회에는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회장은 대회사에서 “겨레얼을 빛낸 역사의 위인들은 언제나 천명 질서를 존중하셨고, 天時·天機·天意를 民意에 반영하여 국운 융성에 집중하고, 모든 문제를 상생과 평화의 정신으로 해결함으로써 유구한 역사 속에 찬란한 겨레얼을 지켜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도래하는 천운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서양이 대세를 장악해 온 상극시대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상생의 평화도덕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갈 동양의 운수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한회장은 지난 운수를 마감하고 새로운 운수를 여는

즈음에 終於良(종어간)始於良(시어간)하는 한반도가 아니면 천운이 그 어디에서 시작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상생과 평화의 도덕문명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특강으로는 서강대 강정인교수가 “서구중심주의와 한국민족종교-전통의 현대화와 관련하여”라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 강교수는 서구중심주의란 “비서구인들로 하여금 서구문명의 우월성 및 보편성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서구의 문화적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민족종교는 전통의 현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민족종교의 가치를 보편화하고 그것을 전세계적으로 실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이날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이날 오전9시 30분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논산 양촌에 소재한 김일부 선생 묘소를 참배하였다. 오는 길에 연산 개태사(주지 양산스님)를 방문하였다. ☺



## 취/임/인/사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음력 4월 5일 제주감무원 정기총회에서 감무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제야 지면을 통해서 인사울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0년전 기사(己巳)년 봄에 최 주 익 포덕사에 의해서 제주에도 수운천사님의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4대 종단으로 우뚝 자리잡은 것입니다. 교세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한 교세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 격랑의 시기에 저는 교역자 생활을 시작했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으나 그냥 휩쓸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새봄을 맞아 천사님의 은총이 뻗어나가기 위한 진통이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인여러분! 다 같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지난날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이 교세 확장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미력이나마 저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분열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면 이는 공멸을 자초하고 만다는 사실을 지난날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화합의 길로 나가는 데 성·경·신을 다해주신다면 천사님의 은총이 반듯이 무량하리라 믿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김 성 주 합장

## 영우총보 편집안내

영우총보는 수강 113년(1934, 갑술) 9월 천사님의 지시에 따라 성관실행한 교인에 한하여 5대 조상부모와 처자까지 수단하여 편성한 보서입니다. 이것을 갑술보라 합니다. 그 뒤에 기해보(1959년), 임인보(1962년), 무오보(1978년), 신사보(2001년)를 편제하여 천단에 봉안하였습니다. (사본 사무실 비치함) 이와같이 5차를 하였으나 단 1회에 한하여 편제함으로써 누락자가 생겼습니

다. 예를 들면 갑술보 113년(1934 갑술) 현재 76세 되신분은 보서에 있으나 그 밑에 손은 기록이 무함으로 조상부모님을 승계하여 현재 봉도인 중심으로 새 총보를 할 예정입니다. 총보작성에 필요한 수단은 인쇄하여 각 지부, 선교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1부를 준비하여 지부교인은 각 지부에 본부교인은 총무원에 제출 바랍니다.

# 경 전

## [敬念總話] 경 념 총 화

### 제 4 장

#### 造字下敬念 孝親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말이니라

1 嗟爾子女아 非父母면 不生이니라 五胞六精은 受父母之血氣하고 四端七情은 稟天地之性命하니 天地가 父母요 父母가 天地니라.

슬프다! 너희 자녀들아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느니라. 오장과 육부는 부모의 혈기를 받고 사단과 칠정은 하늘의 명한 성품을 받았으니 천지가 부모요 부모가 천지니라.

2 故로 曰乾爲老父하고 坤爲老母라하니 欲報恩德이면 實是罔極이로다 十恩百行에 如何報答고 每於一生에 順奉心志하여 敬之如天하고 善養口體하여 事之如天하고 敬念發願하며 使汝父母로 卽得安樂하고 永生仙國이라야 可謂通天大孝니라.

그러므로 하늘을 늙은 아버지(老父)라 하고, 땅을 늙은 어머니(老母)라 했으니 은덕을 갚고자 할진댄 실로 끝이 없도다. 열가지 은혜와 백가지 행실에 어떻게 보답할까. 한평생 부모의 뜻을 받들어 잘 봉양하며, 섬기기를 하늘님 같이 하고 공경하는 생각으로 발원하며 너의 부모로 하여금 곧 인락을 얻게 하고, 영원히 신선의 나라에 살게 하여야 가히 하늘을 통한 큰 효도라 할 지니라.

【주】四端 -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七情 - 희, 로, 애, 락, 애, 오, 욕

### 제 5 장

#### 化字下敬念 忠君章

나라에 충성하는 말이니라

1 嗟爾率土臣民아 非君이면 不食이니 恩莫大焉이요 德莫重焉이니 君是下

民之天이니라.

슬프다! 온나라 백성들아, 나라가 아니면 먹을수가 없으니 은혜가 이보다 더 큼이 없고, 덕이 이보다 더 중함이 없으니, 나라는 곧 백성의 하늘이라.

2 每於四業에 盡職勤稅하며 竭忠獻身하고 敬念侍天하되 祝其聖壽하며 願其泰安하면 致君於聖明之上하고 化民於昇平之際하여 萬方이 咸寧하고 億兆가 願戴하리라.

매양 사, 농, 공, 상의 네가지 업에 직분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고 납세를 잘하며 충성을 다해 몸을 바치고 공경한 생각으로 하늘님을 모시되 그 거룩한 수명을 빌며 그 편안함을 원하면 가장 거룩하고 밝음에 이르게 되고 백성은 태평한 세월에 살아서 세계 모든 나라가 편안하고 억조창생이 받들어 모시기를 원하리라.

### 제 6 장

#### 定字下敬念 夫婦和合章

부부 화합하는 말이니라

1 嗟爾善男善女아 夫體乾健하고 婦承坤順하여 配合二姓하니 此亦天地라 天地不和면 萬物이 不成하느니 夫婦不和하면 萬事不濟이라 吾亦惡之로다.

슬프다! 너희 선남 선녀들아 지어비는 하늘의 굳센 것을 몸받고 지어미는 땅의 순한 것을 이어받아서 두 성(姓)이 배합한 것이니 이 또한 하늘과 땅인지라. 하늘과 땅이 화합치 못하면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부가 화합치 못하면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미워 하노라.

2 每於朝夕에 外飭內修하여 敬念侍天하되 願其和樂하면 家道昌盛壽福多男하리라.

매양 아침 저녁에 밖에서 신직하고 안에서 닦아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을 모시되 그 화력함을 원하면 집안이 창성하고 장수하며 부유하고 자손이 많으리라.

### 제 7 장

#### 永字下敬念 待人接物章

남을 대하여 접대하는 말이니라

1 人亦天也오 我亦天也니 萬物이 莫非天也니라 己所不欲을 強施於人하면 反受其殃하느니 戒勿殺生하고 博愛群靈하되 反是則欺天慢天이니라 積陰德於冥冥하면 報善慶於昭昭하느니라.

남도 또한 하늘이요, 나도 또한 하늘이니 만물이 하늘 아님이 없느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것을 남에게 시키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느니 조심하여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되 이에 어그러지면 하늘을 속이고 하늘을 업신여김이 되느니라. 남 모르는 사이에 음덕을 쌓아두면 밝고 밝은데서 좋은 경사를 받느니라.

2 恒於一心이 侍之如天하며 愛之如天하고 敬念侍天하되 爲人願發하면 天和地和人和에 萬物이 和矣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며 사랑하기를 하늘같이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을 모시되 남을 위하여 발원하면 하늘도 화하고 땅도 화하고 사람도 화함에 만물이 화하느니라.

### 제 8 장

#### 世字下敬念 修身章

몸을 닦는 말이니라

1 稟天地之元氣하고 受父母之血肉而 生하니 非我之私有요 卽三才之公物也니라.

천지의 원기를 지니고 부모의 혈육을 받아서 내가 낳은 것이니 사사로이 가질 내 것이 아니요, 곧 하늘과 땅과 사람의 공유물이니라.

2 明於責己하여 不敢毀傷이 孝之始也오 立身揚名하고 竭忠盡命이 忠之終也니 行善懲惡에 必慎其獨하며 敬念侍天하여 九靈淸淨하고 三精이 爽明하여 心廣體胖하여 與天德合

하고 與道爲一하리니 化被五洲하고 運通三界하리라.

자신을 책하는데서 밝아서 감히 몸을 훼손치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이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고 충성으로 목숨을 다함이 충성의 마침이 되느니, 착함을 행하여 악을 고침에 반드시 그 혼자함을 삼가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을 모시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건강하여 하늘과 더불어 덕이 합하고 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느니, 화한 기운이 오주세계를 덮을 것이요 운이 삼계에 통하리라.

### 제 9 장

#### 不字下敬念 齊家章

집안을 정돈하는 말이니라

1 家爲一人之社會니 三綱이 生焉하고 五常이 定焉이니 一家仁하면 一國이 興仁하고 一國이 興하면 天下平하여 萬邦이 興仁하느니라. 一家不齊면 天必厭之하사 傾家敗破産業하고 一家和合하면 天必愛護하사 萬事成就하고 一門이 昌大하느니라.

집은 한 사람의 사회가 되느니 삼강이 낳게 되고 오상이 정하게 되느니 한 가정이 어질면 한 나라가 어진 것이 흥하고, 한 나라가 흥하면 천하가 태평하여 모든 나라가 인지하게 되느니라. 한 가정이 정돈되지 못하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사 집안이 기울어져 망하며 사업은 실패 하게되고, 한 가정이 화합하면 하늘도 사랑하여 보호하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한 집안이 창성하여 지느니라.

2 事無親疎하고 物無厚薄히 一視同愛하고 恒於一心에 敬念侍天하되 願其齊和하면 一家之和가 化被草木하고 賴及萬族하니라.

무슨 일이든지 친하고 불친함이 없고 물질에 후박함이 없이 똑같이 보고 사랑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과 공경하는 생각으로 하늘님을 모시되 그 정돈되고 화목함을 원하면 한 가정이 화목함이 초목에 까지 미치고 온 인류에 까지 힘입어 미치느니라.

# 진리의 배울을 떨며...

## 법구경(法句經)에 대하여

원시불교 경전. 팔리어로 된 경전을 담마파다(Dhammapada)라 하며, 소부(小部)에 속한다. 여러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며 불교도들 사이에 가장 널리 애창되어 오늘에 이른다.

세운문형식인데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법구경은 모두 26장으로 나누고 그 계송은 장장 423수의 시를 옮긴 팔리어 본과 팔리어 원전의 26장을 500수의 시로 번역하고 여기에 13장 250수의 계송을 추보하고 있는 것이 한역 법구경이다. 문장은 평이하고 분명하며, 깊은 종교적 경지가 담겨있어 불교의 바이블역할을 하고 있다. 또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 간다리다르마파다, 우다나바라가, 출요경(出曜經) 등의 여러 가지 이본(異本)이 있다.

시대를 초월해 현대인들의 마음에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게 다가오는 경전 중의 하나가 바로 법구경(法句經)이다. 법구경의 두드러진 특색은 시의 형식을 빈 잠언, 지혜의 말씀이라는 점이다. 이 계송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간결한 노래의 형식을 빌어,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자 했던 원시교단 구성원들의 노력이다.

법구경의 성립시기는 대개 기원전 4세기 내외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법구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보다 이전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짐작되는 내용도 있다.

이 경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교리상의 문제나 계율적인 쟁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결국 법구경의 요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출가수행자나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일의 근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 그 래서 모든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밝은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법구경의 말씀들은, 왜 법구경이 가장 널리 읽히는 대중적인 경전으로 자리잡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이다.

법구경 만큼 예로부터 불교도들에게 애송된 경전도 드물고, 또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경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까지도 법구경 만은 별 다른 저항감 없이 접한다는 사실은, 바로 법구경 만이 가진 깊은 지혜의 보편성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내 잘못을 되 살펴 보라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근심, 다툼 영원히 사라지리라  
생활의 즐거움만 구하면 사악함이 찾아 든다

### 【007】

行見身淨 不攝諸根 飲食不節 漫墮怯弱  
행견신정 불섭제근 음식부절 만타겁약  
爲邪所制 如風靡草.  
위사소제 여풍미초.

역 생활의 편안함만 쫓아 구하고

감관의 욕구를 못 다스리고  
먹고 마심에 절제가 없으며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사악함이 그를 쉽게 뒤엎으리  
바람이 악한 풀을 쓸어 넘기듯  
욕심을 버리면 사악함이 찾아 들지 못한다

### 【008】

觀身不淨 能攝諸根 食知節度 常樂精進  
관신부정 능섭제근 식지절도 상락정진  
不爲邪動 如風大山  
불위사동 여풍대산

역 욕심을 더러운 것이라 보아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린다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독한 마음 욕심을 버려라

### 【009】

不吐毒態 慙心馳騁 未能自調 不應法衣  
불토독태 욕심치빙 미능자조 불응법의

역 마음이 독한 태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따라 뒤쫓아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의에 알맞지 않다.  
독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 【010】

能吐毒態 戒意安靜 降心已調 此應法衣  
능토독태 계의안정 강심이조 차응법의

역 마음의 독한 태도 벗어버리고

온갖 덕행 쌓고 계행을 잘 지키어  
마음을 굴복시켜 스스로 다스리면  
이것이 법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네  
진실을 거짓으로 생각하면 참 이익이 없다

/다음호에 계속 연재합니다

### 【001】

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惡 卽言卽行.  
심위법본 심존심사. 중심념악 즉언즉행.  
罪苦自追 車轆於轍.  
죄고자추 거력어철.

역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 자취처럼  
착한 생각을 하면 행복이 따른다

### 【002】

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善 卽言卽行.  
심위법본 심존심사. 중심념선 즉언즉행.  
福樂自追 如影隨形.  
복락자추 여영수형.

역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행복은 그를 따르리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원한을 마음에 굳게 새기면 원한은 끝이 없다

### 【003】

人若罵我 勝我不勝 快意從者 怨終不息.  
인약매아 승아불승 쾌의종자 원종불식.

역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 굳게 마음에 두면  
그 원한은 끝내 가리았지 않으리  
원한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원한은 사라진다

### 【004】

人若致毀罵 役勝我不勝 快樂從意者 怨終得休息.  
인약치훼매 역승아불승 쾌락종의자 원종득휴식.

역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원한은 이내 가리았으리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다

### 【005】

不可怨以怨 終以得休息. 行忍得息怨 此名如來法.  
불가원이원 종이득휴식. 행인득식원 차명여래법.

역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으리  
오로지 참음으로 원망은 쉬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남의 허물만을 꾸짖지 말고 내 잘못을 살펴라

### 【006】

不好責彼 務自省身. 如有知此 永滅無患.  
불호책피 무자성신. 여유지차 영멸무환.

역 남의 허물 꾸짖기 좋아하지 말고

# 본부·지부동정

## ❖ 야외화장실정비



총무원에서는 2월 19일부터 10 일간의 작업으로 법회당 앞 화장실을 깨끗이 개·보수하였다

시공은 벨엘건축 김승환씨가 맡았다.

## ❖ 신장기도 봉행



지난 3월 3일 (음 2. 7) 천단 광덕문(남문)에서 120여명 교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장기도를 봉행하였다. 김승천 경위사가 집전하고, 이태화, 문충식 정위사가 보좌하였다.

## ❖ 소방훈련 실시



대전북부소방서에서 3월 11일 오후 3시에 차량4대가 동원되어 문화재보호 특별훈련을 실시하였다.

## ❖ 시방댐 조경사업



3월 20일 시방댐주변 조경사업에 유성구청 교육사령부 수운교인등 250여명이 동참하여 연산홍 철쭉 빛나무 등 5000여그루를 식재하였다.(수운교에서는 떡과 음료수를 제공함)

## ❖ 도량환경정비사업



3월 20일부터 4월20일까지 유성구청 녹지사업소에서 연산홍 3000주, 꽃나무 1000주, 신성동 주민센터에서 꽃나무500주와 묘목 300주 민병연씨로부터 빛나무 1000여그루 기증받아 많은교인(연인원 800)들의 협조로 정화작업을 완료하였다.

## ❖ 용왕기도봉행



해마다 봄에 부녀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용왕기도가 지난 3월 29일(음 3.3) 충남 안면도 꽃지해

변에서 있었다.

멀리 서울, 경기, 경북에서도 동참하였으며 아침7시 본부, 대전, 유성, 신탄진 네곳에서 미리 대기중인 4대의 버스를 이용 유성 현충원에서 집결하여 인원파악 후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버스내에서는 법일예식과 동시에 무사히 행사를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단히 기도를 올리고 가는 목적지인 꽃지 해변에 도착 대전지부와 합류를 하여 총무원장 등 남녀교인 17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용왕기도를 올리고 안면도휴양림을 간단히 견학을 하였다.

## ❖ 공설묘지조성사업

4월7일부터 15일까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잔디와 주목 측백 연산홍등을 식재하였다.

## ❖ 총무원 지부순회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2박3일간 강서조총무원장님과 김옥현교회부장은 제주지역 광양, 안덕, 봉개, 신전, 화순, 조천지부를 순회하여 지부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점을 청취하였다.

## ❖ 법사회의 개최

법사원은 4월 26일 오후 1시 복지관에서 법사회의를 개최하고 탄강기념식 집행위원을 심의하고 단합대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 ❖ 안덕지부 천법당 정비

수운강생 108년 봄에 포덕사 최주익이 교주 수운천사의 명교로 제주에 입도하여 처음으로 덕수리 박대호씨를 포덕 하였습니다. 박대호 시호자는 수강 108년 12월 15일에 천단을 자택에 봉안하고 수강 109년 2월 15일 수운교 제주도 분관을 창설하여 초대 감사에 취임하니 수운교가 제주에 처음 정착하게 되었다.

수강 116년 2월에 산방산에 100여 평을 확보하여 천법당을 설립하고 동년 11월 8일 낙성식을 봉행할 때에 수운천사주께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셔 오시어 증명한 가운데 불상을 봉안하시고 압호를 『정정암』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중건하였으며 수강 187년 8월부터 도량정리, 부처님 개금, 지붕 수리 등 교인들의 회사 성금으로 4천여만원을 들여 정리 작업을 하였다.

## ❖ 제주 감무원 임원개선

제주도 감무원은 지난 4월 29일(음 4월 5일) 감무원 임원회의를 통해 임원 개선을 하였다.

- ▲ 감무원장 김 성 주 (수산지부장)
- ▲ 총무부장 오 형 범( 광양지부장)
- ▲ 재무부장 송 선 호 (화순정위사)
- ▲ 감찰부장 김 석 보 (봉개지부 정위사)
- ▲ 교도부장 오 동 구 (홍로지부장)

## ❖ 기축년 188년 공설묘지 안장영가 제향제

총무원은 5월 5일 (양 5. 28 목요일) 단오절을 맞이하여 공설묘지 안장영가를 위한 합동제향을 오전 10시에 봉행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전국교인 합동 수련대회 예고

188년 전국교인 합동 수련대회를 제주도에서 7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추후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우편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단 신

\* 본부신도회 (회장 박남행)는 탄강기념식을 전후하여 축등가설과 철거를 맡아 주었고, 본부부녀회 (회장 정이순)는 불기, 식기 닦기와 공양물 준비, 내빈접대를 맡아 수고하였다.

\* 대정지부 전정은 지부장은 지난 5월 8일 법인사무국에 지부장소유의 대지 201㎡, 임야 270㎡ 건물 3동을 출연하였다.대정지부는 유성구 대정동 561-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가 약 1억2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5월 13일 재단법인에 증여하여 등기 완료 되었다.

\*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기테대학에서 민족종교학강좌를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는 차브로스키 교수가 맡는다.






▶ 5월 10일(음 4. 16 일요일) 위령제를 문충식, 김승천, 이태화, 김영호, 김영대, 송선호, 오형범, 최재봉등이 집례를 하였으며 남녀교인 40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손 박수법



박수는 손의 기맥과 경혈을 부분적으로 자극해서 손과 연결된 내장 기관을 자극함으로써 갖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하나의 동작에 10~20초씩 지속해서 치며, 해당 부위가 안 좋은 경우는 20~30초 연속해서 친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박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

### □ 손등 박수

한쪽 손등을 다른 한 손으로 때리듯이 치는 박수. 양손을 번갈아 가며 손등을 친다. 이 박수는 특히 허리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요통이 심하거나 평소에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박수를 꾸준히 쳐주면 좋다. 허리 외에 등과 척추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 □ 손바닥 박수

손가락을 짝 펴고, 약간 뒤로 젖히고, 손목은 서로 붙인 채로 손바닥만으로 박수를 친다. 손바닥만 부딪쳐서 박수를 하면 전반적으로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 주먹박수

주먹을 쥐 후에 양손을 맞대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끼리 박수를 친다. 처음엔 손가락 뼈마디가 아프지만 익숙해지면 경쾌한 묵탁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두통과 어깨 부위 통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 □ 손가락 박수

양손을 마주 대고 손바닥은 펴 채로 손가락만을 댄다. 손가락끼리만 부딪치는 박수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손가락을 집중 자극하는 이 박수는 심장과 기관지를 자극해서 이와 관련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코 부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 □ 손가락 끝 박수

양 손가락을 마주 대고 손가락 중에서 손가락 끝 부위만 댄 채로 박수를 친다. 손가락 끝만을 지속해서 자극을 주면 그 부위와 연결된 눈과 코 부위 건강에 좋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만성 비염, 코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은 손가락 끝 박수를 집중적으로 해주면 효과가 있다.

### □ 손목 박수

손목과 연결된 손바닥의 끝 부분만 댄 채로 마주치는 박수. 이 부위와 연결된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생식기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 또 정력증강에도 효과적이다.

### □ 목뒤 박수

양손을 목뒤로 돌려서 힘차게 박수를 한다. 어깨 부위의 피로를 푸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평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 전체가 뻣뻣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 동작이 매우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 반복하면 곧 익숙해진다. 어깨 통증 완화 효과 외에 어깨나 팔 부위에 근살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 □ 합장박수

열 손가락을 마주 대고 양손을 힘차게 부딪치는 박수. 이때 생기는 마찰 진동으로 손바닥의 14개 기맥과 3백45개의 경혈이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다.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손발 저림, 신경통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인터넛 발취〉

## 탄강 경축 기념일을 맞으며...



수운강생 188년! 우리교단 상반기 연례행사 중 가장 큰 경축행사를 맞으며 몸과 마음 다같이 온통 축제 분위기로 바쁜 나날들!

지난 주말부터 금병산하 경내도량 전체가 축등의 물결로 수놓아져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경탄을 아끼지 않는다.

오월의 눈부신 햇살과, 아직은 연녹색의 푸름속에서 유백색의 휘늘어진 불두화는 꽃으로의 화려함 이기보다 백색의 순결과 살포시 숙여 핀 꽃 봉우리에서 웬지 숙연함까지 느껴진다.

가정의 달 5월 음력으로 4월 중순 탄강기념 준비로 바쁜일과에 쫓기며 봄 이련가 하다보니 초여름의 문턱!

이즈음 나는 남이 아닌 나를 바꾸므로 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싶다.

몸은 고달퍼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하고 몸은 편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한법이 모두가 마음먹기 달렸나니 마음이 편하면 아쉬움도 미련도 없애라.

한계라고 느껴질때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중심에 설수있는 용기 있는 자만이 문제해결의 책임있는 주인이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 아닌 상대방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할 줄 알고, 자신의 태만을 반성할 줄 아는 양심과, 덕을 베풀어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난해한 양심따위를 들먹이지 않고도 맑은 하늘을 떼땀이 바라볼 수 있는 평온한 하루를 나의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유로움!

그 어떤 잘못을 고치기 위해 질책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해와 관용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과 이해와 배려 믿음·존중·희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사람속에 가장 필요한 덕목과 계율이라 생각하면서 편견없이 신뢰하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상대성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분별이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믿음과 함께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사물을 놓고 눈으로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마음으로 보고 간직하고 사람도 있는 것이다.

참으로 좋은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에 사랑은 말하지 않고 간직하며 마음으로 전하게 된다.

우리는 하늘님을 믿고 모시고 산다는 자부심과 책임이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떠한 조건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현식을 외면하지 말고 상황에 빠지지도 말며 책임을 다했을 때 현실에 올바른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책임감은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

지금 내 스스로 현실에 고통과 시련 아픔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를 보다 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진정 소중함이 무엇인가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 생각하며 나도 결코 하늘님께 외면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 드리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내 영혼을 영글게 하리라!

본부부녀회장 정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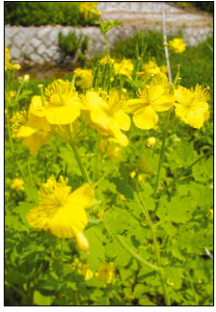
자택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분은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042-861-1771 ◆

# 건강상식

## 우리주의에 자생하는 약초 애기똥풀

[약명 : 젓풀, 백굴채]



우리나라 전국각지의 산과 들 집근처 율타리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써 양귀비과에 속하며 독성이 있다. 봄철(4월~8월) 노란꽃이 피며 잎과 줄기에서 애기의 똥물처럼 누런빛의 진이 난다 그래서 애기똥풀이라한다.

잎이 무잎과 비슷하고 아랫면은 분처럼 희기 때문에 백굴채라 불리기도 한다.

도 한다. 일명 까치다리라 하는데 줄기가 자라면서 억세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 통증과 기침을 멈추고 소변을 잘누게하며 독을 푼다. 살균, 해열 항암작용을 한다. 각종 피부병, 습진, 무좀, 음, 악성종기를 치료한다. 뱀에 물린데도 좋다.

- 위장통증이 클때 차마시듯 묽고 따뜻하게 끓여서 마신다.
- 만성기관지염, 백일해에도 좋다.
- 해열이노작용 간경화에 의해 복수가 차오를때나 부종을 동반한 황달 증세가 있을때 효과가 좋다.
- 외용약으로 쓸때는 생것을 찢어서 붙인다.

<주의 : 少毒(소독)이 있으므로 과량 섭취는 금한다.>

<정기백|영창당한약방>  
(042) 823-5804

# 계·시·판

## 상·하반기 법회안내

◎ 삭망치성기도 (음)	매월 1일, 15일	오전 7시 20분	
◎ 백일기도치성 (음)	매월 27일	오후 3시	법회당
◎ 인등백일기도 (음)	4월 23일	오전 10시	봉령각
◎ 수련기도 (음)	매월 1~7일	오후 3시	법회당
◎ 법일 (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윤달천도제 (음)	윤 5월 1일~7일	오전 10시	법회당
◎ 칠석기도 (음)	7월 1일~7일	오후 5시	도솔천
◎ 인등이백일기도 (음)	7월 4일	오전 10시	봉령각
◎ 백중위령제일 (음)	7월 15일	오전 10시	법회당
◎ 교주열반일 (음)	9월 18일	오전 10시	봉령각
◎ 조왕재일 (음)	9월 30일	오후 3시	장실
◎ 용왕재일 (음)	10월 3일	오후 3시	장실
◎ 산왕재일 (음)	10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문의 ☎ (042) 861-1771>

\* 포덕성금 (188. 5. 15. 현재) 63,849,501원 입니다.

\* 장학성금 (188. 5. 15. 현재) 2,450,000원 입니다.

# 특성금품쾌척

### ◆ 도량정화사업

- 2,000,000 : 강서조
- 1,000,000 : 박창희, 문충식, 이선, 박기용, 허혜원(부산), 임정심(강원석, 강형석, 강이석, 강정석 (신천))
- 500,000 : 이덕예, 김이태, 김덕환, 이상철(부, 이명우), 오학기
- 300,000 : 이태화, 강선부, 박원림(조천), 김제국, 옥석보
- 200,000 : 김종일, 이옥련(이호), 이재화, 이영주
- 100,000 : 전해성, 백운학, 고영대, 광기중, 백용철, 송규섭, 김광남, 변덕용, 유우상(본부), 오영석(이호), 오정열(이호), 김수자(상호), 이상호

### ◆ 탄강기념 회사

- 200,000 : 서진림(신천지부장), 편순희(보령지부장)
- 100,000 : 오화선(본부), 윤성환(본부), 김영호(안덕지부장), 채정현(일도), 양화춘(상호)
- 50,000 : 최창진, 오윤부, 김강보, 박기순, 송기삼, 양재진, 김옥련, 이상진, 허종교, 이태정, 송선호, 한용수, 이화토담, 임정심, 강원석, 김영대
- 기타 : 양순자, 김태윤, 허순자, 양옥자, 홍삼규, 고효지, 현매보, 정애용, 문매화, 오은선, 조선옥, 이복순, 이옥련, 김종현, 황적길, 김순애, 오인자, 이태정, 허종교, 이상진, 오춘생

### ◆ 물품회사

- 백미 : 이장성
- 버섯 : 한정호(5관), 이윤순
- 밀감 : 강수원 (홍로), 신천지부
- 머위 : 민병환

<감사합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학선군부인 노대순 환원 (子 이상철 대곶지부)
- 학선군부인 윤춘한 환원 (子 서정섭 본부)
- 보령군대인 이정구 환원 (子 이장성 본부)
- 학선군부인 김준점 환원 (夫 김구한 청라지부장)

## 교/역/자/모/집/안/내

총무원에서는 교역자로 봉직할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행기간을 거쳐 본부 및 지부, 선교소에서 정위사로 봉직하게 된다.

- 아 래 -

- 모집기간 : 188(2009).6. 30.까지
- 자 격 : 만20이상 ~ 만60세 미만인자
- 인 원 : 약간명
- 서 류 : 자필 이력서 1통
- 연 락 처 :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403번지 ☎ 042)861-1771



## 기축년 (수강188) 윤달 천도봉행 안내



총무원은 기축년 윤오월 윤달을 맞이하여 선망부모 제위영가와 순국충의 열사 제위영가 육해공군 전몰군경 제위영가 일체 무주고혼 각열위 영가를 위한 합동 위령 천도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 ▶ 봉안입재 : 윤 5월 1일 (양 6. 23 화요일)
  - ▶ 중 간 재 : 윤 5월 4일 (양 6. 26 금요일)
  - ▶ 천도회향 : 윤 5월 7일 (양 6. 29 월요일)
  - ▶ 동 참 금 : 50,000원 / 1위당 20,000원
- <예> 1위 70,000 2위 90,000 3위 110,000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덕미를 납부합니다.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 교인은 소속 지부에 납부바람